비좁은 골목길을 질주하는 자동차, 삐쭉삐쭉 튀어나온 간판, 울퉁불퉁하고 비좁은 보도, 높다란 계단….
허겁지겁 주택을 짓고 도로를 뚫다 보니 우리 도시는 노인들을 배려할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힘없고 민첩성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 거리는 냉혹하고 비정하다. 그렇다고 집 안이 안전한 것은 아니다. 노인의 안전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장소는 바로 주택 내부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노인층의 안전사고를 조사한 결과, 전체 사고의 57.2%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욕실이나 문지방에 넘어져 사고를 당하는 노인들은 부지기수이다.